

삼성의 노하우 + 공정 혁신으로 마스크 생산량 2.5배 ↑

Q 르포 | 삼성에 마스크 노하우 전수받은 '화진산업' 가보니

삼성전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7년만에 연 매출 300억 이상 성장 "동종업계에 노하우 공유·상생할 것"

화진산업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한지 7년 만에 연 매출 300억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회사다.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 꼽힌다.

화진산업은 전남 장성군 나노산단에 위치해 있다. 서울에서 약 4시간 거리, 기계의 열기가 가득한 산업단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정문에는 '한국바이오산업 패키징 협회'라는 안내문이 화진산업임을 알렸다. 안내문은 친환경 원료를 통해 생분해가 가능한 패키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부여되는 것으로, 화진산업은 사탕수수를 베이스로 한 친환경 포장용 랩을 생산하며 성장해왔다.

화진산업은 2016년부터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을 받아왔다. '생산관리시스템(MES)'과 사물인



화진산업 입구.

/백지연 기자

터넷(IoT) 기반 생산 공정 자동화 등으로 공정을 효율화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는 삼성전자로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판로 개척 ▲신기술 접목 ▲인력양성 등으로, 화진산업은 삼성전자로 부터 기기 재배치를 통한 공간 효율 제고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력 확충 등을 조언 받았다.



화진산업 직원들이 마스크 포장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화진산업

보건용마스크 사업도 삼성전자의 지원을 통해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었다. 2017년 처음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를 대비해 생산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였다. 올 초부터 마스크 필터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렵게 구축한 공장을 멈춰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 반면 수요는 급증하면서 내부 위기감도 높아졌다.

삼성전자의 지원은 위기에서 빛을 발했다. 삼성전자가 도레이첨단소재로부터 필터를 공급해주면서 화진산업도 비로소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다.

공정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삼성전자로 부터 마스크 생산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았을뿐 아니라, 직접 마도되기 쉬운 금형 등 부품까지 제작해줬다. 이에 따라 화진산업은 설비당 2명이었던 인력을 5명으로 조정했으며, 하루 4만개에 불과했던 마스크 생산

량을 10만개로 대폭 늘리며 연 매출을 300억원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화진산업은 이같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초기 생산분인 마스크 100만개를 '노마진'으로 공급한 것이다.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는 삼성전자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스스로도 노하우를 비호한 처지의 중소기업과 공유하며 상생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화진산업의 목표는 단순한 국내 시장 활성화가 아니다. 화진산업이 보는 경쟁자는 다른 마스크 제조사가 아닌 전세계 방역 업체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역 제품을 개발해 전세계에 진출하며 'K-방역'을 알리겠다는 포부다.

화진산업 이현철 대표는 "해외에서 K 방역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간다. 모든 부품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렇기에 국내 마스크 동종업계들은 경쟁업체가 아니다"라며 "높은 눈높이에서 삼성전자에 배운 노하우를 동종업계에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남)=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사람 감정까지 표현하는 'AI 가상인간' 등장

증강현실 기술 결합 3D 캐릭터 등장 가상인물 형태로 어색하지 않게 대화

인공지능(AI) 가상인간의 형태로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증강현실(AR) 기술이 결합한 3D 캐릭터가 등장해 사람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아바타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데커드에이아이피는 캐릭터를 제작해 영상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아바타 앱을 최근 오픈한 데 이어 AI 가상인간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솔트룩스도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아이 2명의 AI 아바타를 개발해 미국 대통령 등 다양한 AI 가상인간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또 한빛소프트는 AR 기술이 결합해 3D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AR 대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3D 아바타 서비스는 어린 아이, 대학생, 선생님 등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감



LG유플러스가 솔트룩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2명의 AI 아이 아바타.

/LG유플러스

정을 표현하는 서비스부터 최근에는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가상인물 형태로 등장해 사람과 감정을 표현하며 어색하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개최된 가상공간 게임쇼인 '2020 인디크래프트'에서는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며 보이스, 텍스트 채팅 등을 할 수 있는 3D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시회에서도 3D, AI 아바타 활

용이 확대되고 있다.

데커드에이아이피는 지난 6월 말 텍스트를 입력하면 감정을 분석해 아바타가 이에 맞는 표정을 짓는 '모저' 앱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아이, 병아리, 곰돌이 등 3종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 후 텍스트를 입력하면 아바타가 내용을 보고 그에 맞는 감정을 표현해준다. '짱이야'라고 입력하면 손가락을 내밀고, '눈물이 난다'고 입력하면 캐릭터가 눈물을 흘린다. 목소리 기능을 켜면 텍스트에 입력한 내용을 직접 말로 해준다.

솔트룩스는 AI 디지털 휴먼인 '평양 친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에 이어 최근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5세 아이를 모델로 2명의 AI 아바타를 탄생시켰다. 이는 5세 아이를 3D 모델링 기술로 복제하고 AI 음성합성 기술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SK텔레콤, 외국인 맞춤형 선납서비스 '미리'

최대 500만원까지 충전 가능

SK텔레콤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한 통신 서비스 '미리(MIRI)'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미리'는 월 정액 요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불 서비스와 선택약정할인, 공시지원금, 멤버십할인 등 통신 혜택을 제공하는 후불 서비스의 장점을 모은 '선납' 서비스다. 미리 충전해 둔 금액을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 등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납 방식에 익숙하다. 또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이 각각 색이라 후불 중심의 한국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 거주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인은 약 22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SK텔레콤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한국인과 동등한 통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통신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리'는 1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충전해두고 통신요금, 단말 할부금,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도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이용 기한없이 충전된 금액을 계속 쓰다가 SK텔레콤 서비스를 해지할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일자리 확보 넘어 임금 인상 요구까지

>> 1면 "회사 위기? 난 몰라"서 계속

이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최근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했던 노사간 화합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넘어 임금 인상까지 확보하기 위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노조의 요구를 따른다면 기본급 인상에 따른 고정비 부담은 물론, 수익의 대부분을 성과급과 노동강도 완화 투자금, 사회공헌비용 등에 고스란히 사용되면서 미래 투자는

힘들어진다. 급변하는 자동차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미 지난 7월 22일 상견례에 이어 23일 2차 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상태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에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400%에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평균 220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일부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TC수당을 500%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지난

2018년 유동성 위기 당시 축소했던 각종 복리후생의 복원도 요구사항에 넣었다. 한국지엠의 경우 2년 전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으며 위기를 넘긴 상태다. 르노삼성 노조 역시 올해 기본급 7만 1687만원 인상, XM3 론칭 격려금을 포함해 700만원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 중이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계 노조를 바라보는 사회적 여론은 싸늘하다. 회사 미래보다 지금 당장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겠다는 노조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일반 소비자들도 국내 브랜드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지속가능경영 성과 등 공개

LG전자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을 소개한다. LG전자는 2일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LG전자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성과, 진척 현황, 향후 계획 등을 공개해왔다. 이번에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비롯해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LG전자 대표이사 CEO 권봉석 사장은 'CEO 메시지'에서 "디지털 전환 중심의 성장과 변화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은 LG전자가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이라며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촉진", "탄소 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 "더 나은 사회 구현"이라는 3대 지속가능경영 지향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이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 핵심이다. 올해 초 열린 CES 2020에서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소개하며 ▲1단계 효율화 ▲2단계 개인화 ▲3단계 추론 ▲4단계 탐구로 나눠 각 단계를 정의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juk@